

종합·해설

盧와 거리두기 나선 우리당

孫 탈당 비판에 “평가는 국민 몫”... 되레 국무회의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순하규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을 '보따리 장수'에 비유하며 맹공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탈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거리를 뒀다.

우리당의 이 같은 태도에는 손 전 지사 탈당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강한 비판적 시각과 우리당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통합 추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손 전 지사의 탈당카드를 살려나가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손 전 지사의 탈당이 이렇듯 해석을 놓고 말이 많은데 탈당 자체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고 말해 노 대통령과 거리를 유지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임기 말 산적한 국정현안을 두고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순하규 탈당을 품평할 만큼 한가한 회의인 지, 국무회의의 다른 현안들이 대통령의 정치평론에 밀릴 만큼 우리나라가 한가한 상황인 지 답답하다"며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은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후보들에 대한 품평은 국민의 몫으로 맡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직설적으로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지병문 윤리위원장은 "대통령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면 좋겠다"면서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하시려면 손 전 지사 측이 고백한 대로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이 보이는 금품살포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선관위나 검찰, 경찰을 총동원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또 손 전 지사 탈당으로 한나라당이 수구보수 세력만 남게 됐

다면서 한나라당에 공세를 집중했다. 정 의장은 "손 전 지사가 떠난 한나라당에 온건 합리적, 개혁적 보수는 없다"며 "남북 평화협력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에 한 줄기 햇볕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나마 없어져서 어떻게 변화와 미래를 향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의 금품살포, 세물치, 줄세우기 등 구태정치 때문에 탈당한다고 했는데 금품살포가 있었다면 그 대상으로 지목된 후보는 누구든 이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금품살포는 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후보가 갖춰야 할 10대 덕목’ 발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10대 덕목 선언문 기초위원회 김형식 목사 등 각계 원로 2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가 갖춰야 할 10대 덕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대선불개입 원칙 지킬 것”

박지원 밝혀 “대북 창구 정부로 일원화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김 전 대통령은 연발 대선이나 정계개편 같은 국내정치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나도 김 전 대통령의 원칙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비서실장으로 ‘동교동 복귀’를 공식화한 박 전 실장은 이날 “김 전 대통령

이 대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본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국가 원로로서 원론적 차원에서 이번 대선이 정책대결이 돼야 한다는 점, 국민은 (범여권) 대통합을 통한 양당제를 원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며 대선 관련 언급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는 대북 접촉 창구를 갖고 있지 않다”며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총재시절부터 지금까지 남북 문제의 논의는 다 양화 하되, 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부를 통해서만 협의하고, 북측과 퍼스널한(개인적인) 채널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방북 보다는 정상회담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정상회담 전후라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창이 있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부락 말씀이 있으면 북한에 그의 의미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방북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 전 대통령 차남 흥업씨의 무안·신안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흥업씨가 (구속된 것은) 어쨌든 측면이 있다”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분이 지난해 양심선언서 편지를 보낸 바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출마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후후 정리해 밝혀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이 ‘수구보수’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당내 대표적 진보개혁 세력으로 평가받아 온 순하규 전 경기지사의 탈당으로 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축소돼 지목된 후보는 누구든 이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금품살포는 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우선 외연 확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손 전 지사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당 밖 중도개혁 세력을 가급적 많이 끌어안겠다는 방침 하에 일단 내달 끝 발족할 대선기획단과 경선관리위원회, 검증위원회에 참석한 이미지의 외부 인사를 대폭 수혈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새 내내 지도부가 구성

되면 당직 인사를 통해 소장파 등 진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을 주요 포스트에 전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정책과 부동산법 등 주요 정책이 있어서도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핵의 완전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전제 하에 소극적·적극적 자세가 아니라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범여권의 ‘반(反)통일세력’ 공세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담겨 있다.

현재 당내에 정형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정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활동 중이며, 한나라당은 이 TF의 결과물을 토대로 내달 중순께 신(新)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반값 아파트’ 법안과 함께 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 법안도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자’만을 챙기는 보수정당이 아니라 시민을 보듬는 민생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심겠다는 계산이다.

당 지도부가 소장개혁파 리더격으로 대선 경선에 나선 원희룡 의원 피우기에 적극적인 것도 경선홍행 카드 차원을 넘어 보수 이미지 탈색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손 전 지사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원 의원을 내세워 당내 개혁세력이 견제함을 알리는 동시에 중도표의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대중 학술상’ 제정 전담대, 5월 첫 시상

전남대학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로를 기리는 학술상을 제정했다. 전담대는 ‘후광 김대중 학술상’을 제정, 오는 5월 첫 시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담대는 민주·인권·평화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내외 학자, 학술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4월께 추천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1천만원과 메달 및 상장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매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에 열린다.

전담대는 조만간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제1회 수상대상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

“남·북·미·중 정상회담 필요”

이해찬 전 총리 밝혀

북핵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해찬 전 총리가 21일 남·북·미·중 4개국간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특보인 이 전 총리는 이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13 합의에 따른 핵 폐기) 초기 조치가 완료되고 북핵 폐기 로드맵이 구체화하는 시점에 한반도 당사국인 남북한과 한국전쟁 참전국인 미국·중국의 정상이 모여 동북아-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며 ‘4개

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총리는 또 “(4개국의) 결단만 이뤄진다면 유럽연합(EU)에 못지않은 공동체를 동북아에 구축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북한을 다녀온 뒤 밝힌데다 최근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 4개국 정상회담설이 꾸준히 불거져오던 시점에 나온 사할이라는 점에서 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청와대도 노 대통령을 예방,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논의한 내용을 보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

경력잔금대출 전문은행
 빚조타운 1층(평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업저축은행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05타경 44891 2005타경 46125 [별합]	1	상성군 장성읍 유림리 1422 장성2차주방아	아파트	79,000,000	임대차 있음.
	2	동소 1422 장성2차주방아 3층 306호 84.7585㎡	아파트	80,500,000	임대차 있음.
	3	동소 1422 장성2차주방아 4층 407호 84.7585㎡	아파트	81,000,000	임대차 있음.
	4	동소 1422 장성2차주방아 5층 808호 84.7585㎡	아파트	81,000,000	임대차 있음.
	5	동소 1422 장성2차주방아 11층 1108호 84.7585㎡	아파트	80,7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18999	1	서구 내방동 841-9 지하층 1호 347.08㎡ [공유지 경원화 지분 40분의1지분.]	아파트	80,0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22942	1	남구 빙림동 558 7층 809호 59.98㎡	아파트	50,0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23044	1	광산구 월곡동 614-2 204동 1층 101호 59.04㎡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아파트	46,0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25279	1	북구 월곡동 819-2 현대아파트 107동 1층 104호 59.380㎡	아파트	88,0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25408	1	서구 남동동 125-4 3층 307호 61.215㎡	아파트	48,0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25675	1	북구 동남동 72-4 현대아파트 106동 14층 1404호 59.84㎡	아파트	73,0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25850	1	남구 주월동 373 4층 404호 59.31㎡	아파트	47,0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28432	1	북구 삼각동 533 그린타운 109동 8층 801호 84.51㎡	아파트	105,0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28944	1	북구 연제동 36-1 103동 11층 1103호 84.94㎡	아파트	85,000,000	임대차 있음.
2006타경 27312	1	북구 삼각동 637 우미타운 102동 2층 210호 84.99㎡	아파트	85,000,000	임대차 있음.
2008타경 4845	1	남구 빙림동 66-3 116㎡ 제시외 통로 등 5㎡	대	86,694,320	일괄매각. 제시외 통로 포함. 임대차 있음.
	2	동소 66-3 2층 1층 65.88㎡ 2층 57.06㎡ 부속건물 면적 1.0㎡	대	80,880,56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임대차 있음.
	3	남구 빙림동 89-15 187㎡	대	80,880,56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임대차 있음.
	4	동소 89-15 1층 53.13㎡ 2층 28.38㎡ 부속건물 면적 0.99㎡ 1.32㎡ 제시외 주차 등 39.7㎡	대	23,354,4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임대차 있음.
2008타경 24191	1	영광군 흥농동 상촌리 511-17 474㎡	대	81,508,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동소 511-17 1층 80.99㎡ 2층 46.3㎡ 부속건물 면적 83.5㎡ 제시외 주차 등 84㎡	대	81,508,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008타경 24665	1	나주시 영북동 8-19 182㎡ [공유지 3인용] 지분 49분의30지분	대	27,089,645	일괄매각.
	2	동소 8-19 59.5㎡ 부속건물 면적 29.75㎡	대	27,089,645	일괄매각.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06타경 25841	1	남구 구동 41-2 106.5㎡ 제시외 최고 9㎡	대	71,685,5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005타경 60981	1	영광군 영광동 남천리 151-3 151㎡	대	30,272,000	일괄매각. 비매각
	2	동소 151-4 30㎡	대	30,272,000	제시외건물소재.
	3	동소 151-5 3㎡	대		
2006타경 12310	1	화순군 돌면 경지리 116 765㎡	전	8,574,5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동소 240-1 873㎡	대	8,574,5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3	동소 241-1 124㎡	대	3,66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12402	1	화순군 화순동 영남리 267-1 2021㎡	전	86,903,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동소 151-6 7㎡	대	86,903,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14484	1	나주시 남평동 서산리 822 1779㎡	대	10,67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동소 674 255㎡	대	10,67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3	나주시 남평동 오거리 1022 164㎡	전	3,9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4	동소 613-2 80㎡	대	3,9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8타경 22560	1	나주시 남평동 동림리 613-1 1084㎡	전	17,324,000	일괄매각. 비매각
	2	동소 613-2 80㎡	대	17,324,000	제시외 건물소재.
	3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산116 13289㎡	임야	6,644,500	
	4	동소 688 1026㎡	대	6,644,500	
	5	광양군 우정면 덕곡리 678-1 977㎡	대	15,983,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8타경 23174	1	나주시 남평동 오거리 1022 164㎡	전	3,9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동소 676-3 1056㎡	대	3,9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3	동소 688 1026㎡	대	3,105,000	
	4	동소 688 1026㎡	대	3,105,000	
	5	동소 748 2008㎡	대	32,849,4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23174	1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79 215107㎡	임야	86,042,800	
	2	동소 산161 17355㎡	대	86,042,800	
	3	동소 산163 188926㎡	대	6,942,000	
2006타경 23471	1	화순군 도암면 홍원리 377-1 1540㎡	전	2,372,400	일괄매각. [공유지 지분 4분의 1]
	2	동소 377-2 711㎡	대	2,372,400	일괄매각. [공유지 지분 4분의 1]
2006타경 24283	1	광양군 영광동 덕곡리 286-3 2968㎡	대	20,76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동소 286-3 2968㎡	대	20,76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24757	1	북구 양산동 680-8/ 387㎡	대	77,400,000	2006타경25842 [중]
	2	동소 680-8/ 387㎡	대	77,400,000	[중]
2006타경 26043	1	화순군 송양면 화림리 658-2 3478㎡	임야	20,888,000	지상에 분묘 있음.
	2	동소 658-2 3478㎡	대	20,888,000	지상에 분묘 있음.
2004타경 75294	1	나주시 문평면 계로리 389 1223㎡	목장용지	11,007,000	
	2	동소 15-5 900㎡	대	11,007,000	
2005타경 52908	1	나주시 봉림면 와우리 15-1 878㎡	대	195,535,400	일괄매각. 비매각
	2	동소 15-5 900㎡	대	195,535,400	일괄매각. 비매각
2005타경 52908	1	동소 15-6 251㎡	대		일괄매각. 비매각
	2	동소 15-7 534㎡	대		일괄매각. 비매각
2005타경 52908	1	동소 15-6 283㎡	대		일괄매각. 비매각
	2	동소 15-1 87.30㎡ 81㎡	대		일괄매각. 비매각
2005타경 52908	1	동소 15-5 330.0㎡	대		일괄매각. 비매각
	2	동소 15-5 330.0㎡	대		일괄매각. 비매각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06타경 12310	3	화순군 돌면 경지리 231-4 1153㎡ 제시외	공용지	54,853,2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4	동소 231-4 199㎡ 부속건물 축사 195㎡ 권 축사	공용지	54,853,2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006타경 21604	1	담양군 용면 두정리 산10-3 9190㎡	임야	585,768,01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동소 174-3 7125㎡ 제시외 왕고동 2117㎡	공용용지	585,768,01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3	동소 174-1 760㎡	공용용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4	동소 174-5 732㎡	공용용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5	동소 174-6 314㎡	공용용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006타경 21604	1	동소 174-8 252㎡	공용용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동소 174-1 989㎡ 부속건물 석당, 사무소, 기숙사 189.5㎡ 보일러실 4.86㎡ 제시외	공용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007. 3. 22. 판 사 정봉기
 광주지방법원 판 사 정봉기
 사법보좌관 박종희